

혁명의 태동 정읍, 혁명정신을 잇다



갑오동학혁명 기념탑

사회발전 신성장 동력 자리매김 동학혁명 후손들의 노력 '활발'

지난해 정읍시가 제안한 5월 11일 황토현전승일이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다. 국가기념일 제정 이후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우리 사회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후손들의 노력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정읍, 동학농민혁명 만행으로서의 역할 충실

정읍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뿌리인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이며, 전개에 있어 핵심적이고 상징공간으로 만행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53년째 선조들의 행적을 추모하는 기념제를 개최하고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기 위한 갑오동학혁명기념탑과 무명의 동학농민군을 추모하기 위한 무명동학농민군 위령탑을 건립했다.

또,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국 최초로 유족수당을 지급하는 등 '동학관'으로 매도되던 시절부터 선양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도출 김용옥 선생을 초청해 '녹두꽃에 피어난 훗날'을 주제로 특강을 열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하고,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공원과 세계기록유산 등재, 동학농민혁명 남북 공동학술대회, UCC 공모전 등을 추진하며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과 계승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5월, 정읍에서 동학의 함성이 들린다

매년 5월에 열리는 황토현동학농민혁명기념제는 특히 정읍인들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애곡과 탄압이 심했던 군사정권 시절에도 담당하고 굳건하게 기념제를 가지며 유족들을 위로하면서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 의지를 다져왔다.

비록, 올해 기념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최소 인원만 참석했지만, 기념제에 참석하지 못한 시민을 위해 온라인으로 기념제와 제례 등을 생중계했다.

더불어, 정읍 시내 일원에 동학농민혁명 홍보 조형물(깃발, 축창, 결계그림 등)을 설치해 시민들에게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 메시지를 전달하고, 기념제와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알리는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SNS 등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황토현전승일 제정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이자 성지인 황토현 전적지(사적 제295호)에서 국가기념식도 개최했다.



- ①제53회 황토현동학농민혁명 기념제
- ②동학농민혁명대상을 수상받은 도출 김용옥 선생
- ③무명동학농민군 위령제

이번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식 개최를 계기로 정읍시는 동학농민혁명의 정신 계승을 위한 각종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고 추진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정읍, 동학농민혁명의 성지로 우뚝 서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군이 첫 승리를 올린 황토현전적지에 이를 기리는 공원이 조성되고 있다.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이하 기념공원) 조성은 지난해 황토현 전승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됨에 따라 더 큰 의미를 갖게 됐다. 동학농민혁명의 최초 전승지인 황토현 전적지 일원에 들어서기 때문이다.

기념공원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숭고한 넋을 기리는 추모 시설을 비롯해 연수 시설, 전시체험시설 등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들어선다.

정부는 기념공원을 역사와 문화, 관광 등이 어우러지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해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애족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대국민 역사 인식을 끌어올리는 교육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황토현전승일 제정 의미 더하기 위해 올해는 황토현 전적지에서 기념식 열려

전적지에 농민군들을 기리는 공원 조성 중 정부, 대국민 역사 인식 끌어올릴 곳으로 활용 10월 서울서 혁명 위상 정립 국제 학술대회 청소년들을 위한 UCC 공모전도 진행돼

특히, 동학농민혁명 당시의 시대상과 정신을 상징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해 방문객들이 농민들의 다양한 삶을 체험토록 함은 물론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한다는 취지다. 기념공원은 이르면 내년 마무리될 예정으로, 이후부터는 국가기념식 공간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도 없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이후 전개된 병오창의 등의 의병항쟁과 3·1운동, 4·19혁명, 6월 민주항쟁, 2017년 촛불혁명으로 이어지며 민주주의를 완성시켰다. 많은 이들이 약무정읍(若無井邑) 시무민주(是無民主), 즉 정읍이 없었다면 우리나라에 민주주의도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이같이 동학농민혁명의 현대사적 의미와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국제 학술대회가 열린다.

10월 30일 서울에서 열리는 학술대회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학술대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이 정읍에서 일어난 것은 기개 넘치는 선조들이 있었고 그 정신을 이어받은 후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조명한다.

특히 해외 연구자도 참여해 동학농민혁명의 세계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토대도 마련한다. 따라서 프랑크푸르트 등 세계사적 혁명과 궤를 같이하는 동학농민혁명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창년들이여, 128년 전 그날의 함성을 기억하라

청소년들에게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전하기 위한 UCC 공모전도 진행됐다. 공모전은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청소년

들의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높이기 위한 취지이기도 하다. 더불어 가깝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동학농민혁명의 새로운 문화가치를 창출하자는 의미도 담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 진행된 이번 동학농민혁명 UCC 공모전에는 45일간 총 32팀이 작품을 접수했고, 심사 결과 대상에는 경기도 오산시에 거주하는 배유미 씨의 출품작 '스캐치로 만나는 동학농민혁명'이 선정됐다.

'스캐치로 만나는 동학농민혁명'은 황토현 전투의 승리가 동학농민혁명사에 의미가 깊음을 표현하기 위해 황토현 전투의 기록과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그림으로 표현해 제작했다.

앞으로 시는 모든 행사 진행 시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을 상영하고 각 교육기관에 배포해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널리 선양한다는 방침이다. 수상작품은 정읍시 공식 유튜브 채널과 정읍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태환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 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